

## 특별법 국회 통과...전남·광주, 40년 만에 다시 하나로

‘통합특별시 설치법’ 본회의서 의결  
재정 지원 특례...서울 준하는 위상  
통합 추진 59일만에 法절차 마무리  
6·3地選 통합특별시장 선출 현실화  
姜시장 “부강한 광주·전남 꼭 실현”  
금지사 “대부흥 통합시대 힘모아야”

전남과 광주의 ‘새로운 시대’를 견인할 역사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6년 광주지할시 승격으로 광주가 전남에서 분리된 지 40년 만에 전남·광주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법제도 기반이 마련됐다. ▶관련기사 2·3·4·5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올해 1월 2일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한 이후 59일 만에 법적 절차가 일사천리로 마무리되며 6·3 지방선거 초대 특별시장 선출과 7월 특별시 출범이 현실화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일 오후 국민투표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행방해) 종료 직후 정회했던 본회의를 다시 열고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특별법은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지방자치법은 재석 의원 173명 중 찬성 16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대보름 고싸움놀이 한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맞이 '제43회 고싸움놀이 축제'가 지난 1일 광주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 테마파크에서 열려 액운을 쫓는 '타오르는 달집'을 배경으로 친척형 기상과 패기의 상징인 고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조영권 기자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방재 조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담겼다.

조선산업 중점 지원,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특례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법에는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이 지난달 29일부터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각각 종결시키고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송언

석 원내대표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토론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즉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해 ‘대구경북통합법’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필리버스터를 거둬들일 테니 ‘대구경북통합법’ 처리에 협조해 달라라는 취지였다. /김진수·김재정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경선 ‘배심원제’ 도입 주목

민주 공관위, 地選 공천방침 발표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해 1차 예비경선에서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한 뒤 ‘시민배심원제’ 본경선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3·4면

이는 통합된 2개 지자체의 화학적 결합을 도모하고, 유권자의 심층적인 숙의 과정을 통해 후보를 압축할 계획이다. 즉, 1차 관문에서 3명의 후보가 컷오프 탈락하며 5명이 본경선에 진출한다.

예비경선 통해 8명→5명으로 압축

본경선은 ‘시민배심원제’ 방안 제시

과반 득표 없으면 결선 투표 전망

최고위서 구체적인 방식 최종 결정

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중

앙당사에서 이같은 공천 방침을 발표했다.

◇3명 컷오프...치열한 예비경선 예고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공모에 참여한 후보는 총 8명이다. 광주권역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 민형배·정준호 국회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상임수석부위원장 등 4명이, 전남권역에서는 김영록 현 지사, 이개호·신정훈·주철현 국회의원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공관위는 8명을 대상으로 합동 연설회와 토론회를 포함한 예비경선을 진행해 상위 5명으로 후보를 압축할 계획이다.

본문 압축할 계획이다. 즉, 1차 관문에서 3명의 후보가 컷오프 탈락하며 5명이 본경선에 진출한다.

조승래 공관위 부위원장(사무총장)은 “주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 예비경선을 생략할 수도 있는 최대 인원인 5명으로 본경선 진출자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광주, 전남 서부, 전남 동부로 나눠 순회 경선하고, 순회 경선 시 일정 부분은 순회 투표하는 방식으로 설계해 보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방식은 최고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5명을 대상으로 한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2면에 계속 /김진수 기자

## 본사사령

◇박은성 이사·편집국장

(3월3일자)

## Today

“사업용차 배심주차 근본 대책 필요” 6면

중동 포화 격화...이란 호르무즈 봉쇄 8면

황동하 30이닝 무실점·윤도현 ‘스리런’ 16면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 OK! 지금 전남시대

# 합치면 특별해집니다

**지역은 더 부강하게**

- 경쟁 불필요
- 특별한 보상
- 일자리 증가

**복지는 더 따뜻하게**

- 통합 복지서비스 마련
- 생애전주기 돌봄 강화

**교통은 더 빠르게**

- 60분 생활권 완성
- 교통 할인 혜택 통합

**생활은 더 즐겁게**

-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확대
- 축제·행사 공동개최

**일상은 더 안전하게**

- 광역 의료 체계 구축
- 의료자원 공동활용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사도민 소통 플랫폼